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4, Vol. 11, No. 2, 377-402

사회불안이 사회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의 이중매개효과검증*

구 훈 정　　양 은 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이 사회자본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이 사회불안과 사회자본형성에의 이중으로 매개한다고 가정하였다. 서울과 지방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16명(남학생 147명, 여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총 3차에 걸쳐 사회불안척도, 자기불일치척도, 의사소통유능감척도, 사회자본척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 검증한 결과, 연구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선택되었다. 연구 모형에 기반하여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불안은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를 부분매개로 하여 의사소통유능감에 영향을 미쳤고,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는 의사소통유능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사회불안이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을 이중으로 부분매개하여 사회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불안 청소년의 온라인 사회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적 지침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불안, 자기 불일치, 온라인, 오프라인, 사회자본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40).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E-mail : junghye@korea.ac.kr

www.kci.go.kr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의사소통 서비스, 정보 서비스와 오락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인터넷 기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중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기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해 면대면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은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상황으로 확장되었으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이라는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공유, 전달력, 연결성 등의 특징은 온라인 공간을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다(Resnick, 2001).

사회자본이란 상호적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축적한 실제적 혹은 가상의 대인관계 자원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존감이나 삶의 만족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소로 밝혀져 있다(Bargh, McKenna, & Fitzsimons, 2002; Helliwell & Putnam, 2004). 사회자본은 친밀감(bonding) 사회자본과 연결망(bridging) 사회자본으로 구분되는데, 친밀감 사회자본은 주로 매우 친밀한 친구나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교환하는 기능을 하며, 연결망 사회자본은 주로 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정보의 교환의 기능을 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용이 이러한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것과 관계있음을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Resnick, 2001; 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Donath & boyd, 2004). Donath와 Boyd(2004: 권정혜, 우성범, 육설아, 조현, 2012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용자는 친밀감이 약간 대상들과도 쉽고 저렴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어 연결망을 확장하고 사회관계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Ellison, Steinfield와 Lampe(2007: 권정혜, 우성범, 육설아, 조현, 2012에서 재인용) 역시 페이스북(Facebook)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략 150~200명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일반인들보다 친구수가 많았고 연결망 사회자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면대면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도 온라인 의사소통이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까?

사회불안장애란, 사회적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불안, 그로 인해 발생하는 두려워하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상황이나 자신의 신체 증상이 노출되는 상황에 대하여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Velting & Albano, 2001), 소리내어 말을 해야 하는 음성 커뮤니케이션 혹은 시각적으로 신체 반응이 노출되는 면대면 대인관계 상황에서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되는데(Kashdan & Herbert, 2001), 이는 장기적으로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거나 대인관계로부터 정서적 지지나 도움을 얻는 데 어려움을 낳는다(Jones, Rose, & Russell, 1990; Leary & Kowalski, 1995; Mendlowicz & Stein, 2000). 즉,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면대면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정서적 친밀감이나(Montgomery, Haemmerlie, & Edwards, 1991) 사회적 지원(social provision)을 받는(Torgrud, Walker, Murray, Cox, Chartier, & Kjernisted, 2004) 등의 사회자본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게

www.kci.go.kr

된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면대면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대인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의 어려움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는 낮은 의사소통유능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의사소통유능감(Communication Competence)이란,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인간은 대인 의사소통 행위를 통하여 관계를 시작, 유지, 발전시켜 나가며 종료시키게 되는데(Applegate & Leichty, 1984),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유능감의 획득 여부는 대인 의사소통 행위의 목표달성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자(Spitzberg & Gupach, 1984; 1989), 성공적인 관계 발전에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Spitzberg & Cupach, 2002). 특히, 의사소통유능감은 개인의 의사소통 성향 및 능력에 강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유능감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개인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상대적 능력이나 주관적으로 인식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McCroskey & Richmond, 1990).

Prisbell(1991)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수줍음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덜 유능하다고 지각하며 이러한 낮은 의사소통유능감으로 인해 관계에서 낮은 만족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Anders과 Tucker(2000)는 불안 및 회피 애착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낮은 관계 만족도와 지지적인 관계망 형성을 보이는 주요한 요소로 의사소통 유능감의 부족을 지목한 바 있다. 즉, 의사소통 유능감의 부족이 특성변인과 지지적 관계망 형성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혀낸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행동억제 기질 혹은 초기 외상경험에 의해 학습된 취약한 심리구조적 특성을 가진 사회불안과 같은 특성 변인과 사회자본형성간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유능감은 주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론된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인지적 특성 예를 들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신을 평가하여 실제 자신과 다른 이상적 자기에 대한 기준을 갖거나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수행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거나 기억하는 등의 인지적 왜곡을 보임으로 인해, 실제 자신의 의사소통능력과 상관없이(오경자, 양윤란, 2003), 자신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덜 유능하다고 지각하고 그로 인하여 면대면 상호작용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등(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Anders와 Tucker(2000) 역시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은 의사소통상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인관계 유능감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유능감의 저하는 다시금 질 좋은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유능감이 사회불안과 친밀감 및 연결망 사회자본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서(강교민, 2011) 의사소통 능력이 사회불안과 웰빙 간의 관계에서 주요한 매개변인 중 하나로 작용함이 증명되었다는 점 역시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 의사소통 환경에서 보다 다른 경험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 의사소통 경험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의사소통에의 유능감을 경험

www.kci.go.kr

하는데 어려움을 보일까?

온라인 의사소통환경은 오프라인 의사소통 환경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시각적, 청각적, 및 맥락적 단서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의사소통 환경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지각 혹은 거절이나 거부단서에 대해 덜 염려하고 덜 불안해하게 되며(Ando & Sakamoto, 2008),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이나 억제가 줄어들 수 있다(Walther, 1996; Wang, Jackson, & Zhang, 2011). Erwin, Turk, Heimberg, Fresco와 Hantula(2004)는 높은 사회불안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텍스트 기반 방식의 인터넷 의사소통(예, 이메일, 채팅, 인스턴트 메시징)을 통해 얼굴 붉어짐, 말 더듬기 등의 두려워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맺음을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Hertel, Schoroer, Batinic, & Naumann, 2008; Sheeks & Birchmeier,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면대면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대인관계의 욕구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보다 용이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 즉 의사소통의 기능적 대체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보다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Mckenna, Green & Gleason, 2002; Goby, 2006).

이렇듯 면대면 상호작용환경과 달리 온라인 상호작용환경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온라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자본을 좀 더 쉽게 형성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사회불안과 온라인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관계 자본 형성에의 관계는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실제 다수의 연구를 살펴보면(Kraut, Kiesler, Boneva, & Cummings, 2002; Wastlund, Norlander, & Archer, 2001; Weiser, 2001; Koo, Yang, & Kwon, under review),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맺는데 서툴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온라인 대인관계에서도 서툴고 불안해하며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의사소통유능감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하여 대인관계를 확장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비해 보다 통제 가능한 공간인 온라인 의사소통 환경에서도 여전히 의사소통에의 유능감을 획득하지 못하며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아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독특한 인지적 특성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우선,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나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에 대한 동기가 더 높다(Leary & Kowalski, 1995; Schlenker & Leary, 1982). 인상관리 및 자기 제시란,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상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말한다(Leary & Kowalski, 1990; Schlenker & Weigold, 1992). Leary와 Kowalski(1990)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제시하고 싶은 인상과 다

www.kci.go.kr

른 사람에게 실제로 제시한 인상이 불일치하다고 지각하면 인상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높은 사회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Arkin, Lake, & Baumgardner, 1986; Clark & Wells, 1995), 이러한 자기 제시 및 인상관리에 대한 동기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상관리 시도는 오히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대인관계 평가에 대한 불안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유능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온라인 의사소통 환경은 오프라인 의사소통 환경에서보다 자기 제시 행동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얻을 수 있어 인상관리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Dominick, Messere, Sherman, 1999; Ellison, Heino, & Gibbs, 2006). 특히, 이러한 자기 제시 통제에 대한 욕구 수준이 높은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에게(외양적 단서가 모두 제외되고 물리적 존재가 필요 없으며 대화내용의 편집이 가능한) 온라인 의사소통 환경은, 인상관리나 자기 제시동기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실현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더욱더 선호될 수 있다(Caplan, 2005; Hertel et al., 2005).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시 경험하는 불안이나 공포가 제거되고 감소된 온라인 환경에서는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실제적 자기(actual self)와 일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비교적 자유롭게 통제가능한 자신의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를 구현해낼 수 있는 점에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상을 관리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Valkenburg & Peter, 2007). Peter와 Valkenburg (2006)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덜 개입하고 덜 주장적인 반면에,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친사회적행동을 보이거나 보다 더 주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오프라인에서의 실제적 자기(actual self)와 온라인에서의 이상적 자기(ideal self)와의 불일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불일치의 극대화 경험은 의사소통 유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수줍음, 외로움 등의 성격에 대한 인지-사회학습 접근(cognitive-social learning approach)에 의하면 (Mischel 1973), 자기 도식(Markus, 1997)과 자기불일치 과정(Higgins, 1987)과 같은 사회 인지 과정이 특정한 성격적 요인이 사회 행동 및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기 불일치와 같은 인지적 과정은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Markus 1977), 이것이 다시금 대인관계에서의 관계 질 및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역시, 왜곡된 인지과정 즉, 자기불일치와 같은 인지과정이 의사소통 유능감과 같은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란, 실제적 자기와 자기 혹은 타인이 그 사람에게 도달하기 바라는 이상적 상태 혹은 의무적 상태와 맞지 않는 조건일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일치가 커지게 되면,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테면, 실망, 불만족감,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Higgins, Klein, & Strauman,

www.kci.go.kr

1985)에 취약해지거나, 심리적 불편감(Higgins, Bond, Kein, & Strauman, 1985; 1986, 이수란, 이동귀, 2008)을 유발하거나 자기 효능감이 저하되는(한빛나, 박기환, 2013)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며, 자기불일치가 커질 경우 자신에 대하여 실제 자신과 다른 기대나 열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 믿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나 확신감을 잃거나 관계 형성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어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in & Boldero, 2003). 즉, 자기불일치는 정서, 인지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자본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불일치 경향성은 사회불안이 증가할수록 커질 것이며, 온라인에서의 자기와 오프라인에서의 자기의 불일치가 커질 경우, 이는 결국 의사소통에의 유능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반대의 주장도 있다. Walther(2007)의 하이퍼퍼스널모델(Hyperpersonal Model)에 의하면, 면대면 상호작용환경과 달리 온라인 상호작용환경은 선택적인 자기 제시(selective self presentation)가 원하는 관계를 맺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Gonzales와 Hancock(2011)은 정상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선택적 자기제시가 자신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미쳐 자존감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고, Valkenburg와 Peter(2008) 역시 온라인에서의 정체감 실험(identity experiment)이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성격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이라는 점에서 이를 사회불안집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제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채로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자 하는 갈망이 증가할 때 발생한다는 점을(Leary & Kowalski, 1995; Schlenker & Learly, 1982) 감안하면, 사회불안집단에게는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자기 제시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자기불일치는 오히려 대인의사소통 상황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회불안집단이 설령 온라인에서 제시된 긍정적 자기제시를 통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자신이 모습에 기반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기 어려운 반면, 타인의 기준에 대한 기준만이 높아지게 되어 이상적 기준과 자신의 사회적 능력 간의 격차가 줄어들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빛나, 박기환, 2013). 실제, Wallace와 Alden (1997)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집단의 경우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 전과 후에 자기능력에 대한 유의한 긍정적 상승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불안집단은 같은 상황에서 자기 능력에 대한 평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기준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사회불안집단이 온라인에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프라인에서 비춰지는 실제적 자기와 불일치한 것이라면,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믿음에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며, 타인의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게 되어 결국 타인기준-자기 효능감의 격차를 줄여주지 못함으로서 더욱더 사회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에의 불안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김영수와 신희천(2010)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자

www.kci.go.kr

기불일치는 의사소통불안을 촉발하고 의사소통 불안을 매개로 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대인관계 안에서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자기 개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불일치하게 되면,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에의 유능감이 저하되고 대화의 효율성이 낮아져 결국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사회불안이 증가할수록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경향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며, 사회불안에 의해 촉발된 온-오프라인자기불일치는 의사소통유능감을 저하시킴으로서 사회관계 자본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기반한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과 온라인 의사소통의 사회자본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가족관계를 넘어서 대인관계가 또래 관계로 급격하게 확장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Giordano, 2003) 또래와의 관계를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이 정체성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Maccoby, 1998). 또한, 청소년기는 개인적 자기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기(social self)에 대한 자의식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기로(Schaffer, 1996)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며 여러 가지 자기와 관련된 인상관리 및 실험을 시도하는 시기이다(Goossens & Marcoen, 1999).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더 쉽게 매료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Peter & Valkenburg, 2006),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도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해간다(Lenhart, Purcell, Smith, & Xickuhr, 2010).

종합하면,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재, 사회불안이 증가할수록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가 증가할 것이다. 둘째,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가 증가할수록 의사소통유능감은 감소될 것이다. 셋째, 의사소통유능감이 감소되면 사회자본형성 역시 감소될 것이다. 넷째,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은 사회불안과 사회자본형성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 양상에 관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3차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차는 2012년 8월에, 3차는 2013년 3월에 실시되어 총 3년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4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327명만이 2차와 3차 자료 수집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327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교사와의 동의하에 수업 중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문지 및 동의서를 배부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지정된 장소로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인터넷 사용 양상은 표 1에 제시하였다.

www.kci.go.kr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 및 인터넷사용양상

변인		명(%)
성별	남자	158명(48.3%)
	여자	169명(51.7%)
거주지	서울특별시	120명(36.7%)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도	4명(1.2%)
	전라도	200명(62.1%)
	경상도	-
경제수준	상	5명(1.5%)
	중상	70명(21.4%)
	중	179명(54.7%)
	중하	62명(19.0%)
	하	11명(3.4%)
인터넷 사용기간	1년 미만	1명(0.3%)
	1~3년	7명(2.1%)
	3~5년	23명(7.0%)
	5~7년	158명(25.7%)
	7년 이상	327명(64.8%)
인터넷 사용빈도	2~3일 1회 이상	180명(55.0%)
	1주일 1회 이상	90명(27.5%)
	한달 1회 이상	57명(17.4%)
인터넷 사용시간	0~1시간	78명(23.9%)
	1~3시간	189명(57.8%)
	3~5시간	39명(11.9%)
	5~7시간	14명(4.2%)
	7~9시간	8명(1.5%)
	10시간 이상	7명(1.0%)

측정 도구

사회 회피 및 불안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

본 연구에서는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 회피 및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를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것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한 불편감 및 회피에 관한 2개의 하위요인에 대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검사지는 자기보고식으로 각 문항은 5 단계 Likert scale(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심하게 그렇다)로 응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28~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 및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지의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과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원 저자의 연구에서 각각 .77, 그리고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자기불일치 척도

본 연구는 자기불일치를 대인관계 측면에서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서수균(1996)이 자기불일치 측정 도구에 사용한 성경 형용사를 정남운(2005)이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Korean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 KIAS)'에 제시된 형용사로 대체하여 재구성한 검사를 사용하였다(김영수와 신희천, 2012). 이러한 구성을 위해 서로 반의어라고 생각되는 형용사 쌍을 조사하여 1분원당 최대 3개의 형용사를 선별하였다. 척도의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형용사척도의 하위 영역 8개를 양쪽으로 배열하여 각각 '주장/소심', 3문항, '사교/회피' 3문항, '친절/냉담', 3문항, '순응/비판', 3문항으로 4개 영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장/소심', '사교/회피' '친절/냉담' 의 3 하위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김영수와 신희천(2012)이 연구에서 수정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구조가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χ^2=150.03, p<.001, df=48, NFI=.91, TLI=.91, CFI=.94, RMSEA=

www.kci.go.kr

.09),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4요인 중 마지막 요인인 '순응/비판' 요인은 동일한 잠재요인에 묶이지 않아 기존의 4요인의 측정모델의 적합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김영수와 신희천(2012)의 연구에서도 '순응/비판' 요인은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자기개념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응/비판'요인을 제외한 3요인 모델을 선택하였다. 김영수와 신희천(2012)의 연구에서는 '실제' '이상' '의무적' 자기개념으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기개념' '오프라인 자기개념'을 각각 12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하위 척도별 각 문항들은 '주장/소심'에 '추진력있는/수동적인, 주장적인/비주장적인, 당당한/소심한'이 포함, '사교/회피'에 '쾌활한/(대인관계에서)불편한, 생기있는/무미건조한, 사교적인/비사교적인', 또 '친절/냉담'에 '정다운/냉소적인, 친근한/배타적인, 친절한/퉁명스러운'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수와 신희천(2012)의 연구에 나타난 각 하위 영역의 내적 합치도는 주장/소심이 .73, 사교/회피가 .70, 친절/냉담이 .85, 순응/비판이 .57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 측정방법

척도 형식은 '어느 쪽도 아니다'를 중심 '0'으로 양방향 4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각각의 질문지에 제시된 문장에 문항별 형용사를 대입해 점수를 평정하게 한 후, 각 하위요인에서 '주장' '사교' '친절'의 긍정문항을 중심으로 채점하였다.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념 불일치는 온라인 자기개념의 각 하위요인 척도 점수에서 오프라인 자기 개념의 각 하위요인 점수를 빼는 방식으로 불일치 값을 산출한 뒤, 산출된 값을 절대값 처리하였다. 절대값 처리의 이론적 근거로는 자기 일치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제안된 Sirgy(1982)의 절대차이 모델을 사용한 것이다(김영수, 신희천, 2012). 예컨대, A라는 학생이 '친절/냉담' 영역의 경우, 온라인 영역에서 '친근한' 항목에 4점을 체크하고 오프라인 영역에서 '퉁명스러운' 항목에 3점을 체크했다면, 이 학생의 '친절/냉담' 영역에서의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점수는 7점이 되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친절'한 자기로 내보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사소통유능감(Communication Competence)

의사소통유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Guerrero (1994)가 고안하고 본 연구진이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총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 '나는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한다' '나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자주 그렇다(1점)'에서 '전혀 아니다(4점)' Likert 방식으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척도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더 높은 의사소통유능감을 가진 것을 나타내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채점을 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의사소통유능감을 가진 것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원 저자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

사회 자본 척도(Social Capital)

Williams(2006)가 개발하고 김구(2010)가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친밀감(bonding) 자본 (예. '개

www.kci.go.kr

인 문제에 대하여 편안하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 '내가 외로울 때 얘기할 사람이 있다')과 연결망(bridging) 자본(예,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거대한 공동체의 부분으로 느끼도록 만든다')에 대하여 각각 10문항씩 측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친밀감 사회자본 .90, 연결망 사회자본 .87 전체척도 .9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자료의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데, 기존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χ^2검증이 전집오류가 적은 좋은 모형도 쉽게 기각되어 연구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표본크기에 쉽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비교 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표준부합치(Normed Fit Index: NFI와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적합도 지수들은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 단, RMSEA는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다음으로, 사회불안에서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을 통해 사회자본에 이르는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1982)의 공식을 사용하여 Z값[1]을 산출하였으며,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 델타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Z값[2]을 사용하였다.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

Russe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권유에 따라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사회 회피 및 불안척도와 사회자본척도 및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자기불일치 척도를 제외한 의사소통 유능감 척도를 각각 세 개의 관측 변수(문항 꾸러미)로 합산하여 묶었다. 문항 꾸러미를 제작한 이유는,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기 쉽다는 단점을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고, 추정할 모수(parameter)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개별 문항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는 단점을 줄일 수 있어 결국 모형의 적합도가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 때, 문항 꾸러미들이 해당 잠재 변수를 같은 수준에서 반영할 때 꾸러미 효과가 최대화 된다는 Russel 등(1998)의 주장에 근거하여, 각 척도의 꾸러미들이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문항들을 묶었다. 이를 위해, 각 척도별로 요인을 1개로 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매겼다. 잠재변수에 대한 각 꾸러미의 평균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만

---

1) $\dfrac{ab}{b\,S_a^2 + a^2 S_b^2}$

2) $Z = \dfrac{abc}{\sqrt{a^2b^2S_c^2 + a^2c^2S_b^2 + b^2c^2S_a^2}}$

www.kci.go.kr

들기 위해 가장 높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과 가장 낮은 요인 부하량을 지닌 문항을 짝으로 묶어 꾸러미에 할당하였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을 매개로 사회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가정된 가설들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내포하는 내재모형(nested model)로서 대안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사회불안이 온-오프라인 자기 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을 부분 이중매개로 하여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모형을 가정하였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회불안은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를 부분매개하여 의사소통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불일치는 다시 의사소통유능감을 부분매개하여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즉, 연구모형은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가 증가하고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는 의사소통유능감을 저하시켜 사회자본형성에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잘 반영하는 부분매개모형1을 가정하였다(그림 1). 연구자의 가정 모형과 비교할 대안 모형 1은 가정 모형을 기본으로 사회불안에서 사회자본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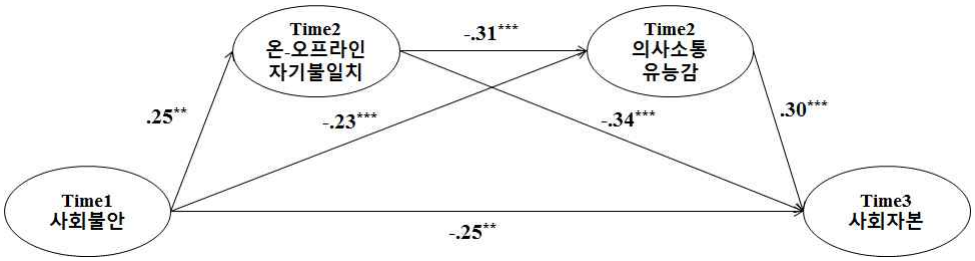

그림 1. 제안 모형(부분매개모형1)의 구조방정식 모형과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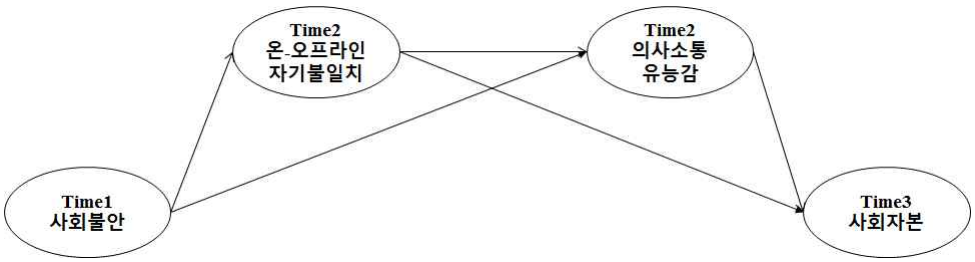

그림 2. 부분매개모델 2

그림 3. 완전매개모델

www.kci.go.kr

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거한 부분매개모형2이다(그림 2). 마지막으로 연구자의 모형과 비교할 대안모형 2는 사회불안에서 의사소통유능감으로 가는 직접경로 및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에서 사회자본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이다(그림 3).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분석

사회불안과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 의사소통 유능감, 및 사회자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사회불안과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는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의사소통유능감,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간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는 의사소통유능감과 사회자본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유능감은 사회자본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남녀 청소년 집단 간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불안에서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t=1.59, *n.s.*, 자기 불일치의 경우 여자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온-오프라인 자기 불일치를 보였으며, t=2.36, p<.01, 의사소통유능감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이 더 낮은 유능감을 보였다, t=3.26, p<.001.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자본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t=-4.07, p<.001, 사회불안을 제외한 자기불일치, 의사소통유능감 및 사회자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 변인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 사회회피	1									
2. 사회스트레스	.73***	1								
3. 자기불일치-주장	.12*	.17**	1							
4. 자기불일치-사교	.22**	.15**	.40**	1						
5. 자기불일치-친절	.06	.08	.35**	.34**	1					
6. 의사소통유능감1	-.29**	-.19**	-.23***	-.21***	-.16**	1				
7. 의사소통유능감2	-.17**	-.14**	-.16***	-.16***	.07	.67***	1			
8. 의사소통유능감3	-.30***	-.18**	-.24***	-.23***	-.14*	.40***	.26***	1		
9. 친밀감	-.27***	-.27***	-.20**	-.29***	-.27***	.39***	.29***	.28***	1	
10. 연결망	-.33***	-.24***	-.17**	-.26***	-.25***	.28***	.26***	.28***	.50***	1
M	36.64	40.00	-.26	-1.16	-1.12	4.06	4.08	5.86	39.78	35.77
SD	6.82	7.48	4.89	4.11	4.22	1.48	1.29	1.34	7.58	6.06

주. 사회회피와 사회스트레스는 사회불안 및 회피 척도의 하위요인이며, 자기불일치-주장, 사교, 친절은 자기불일치 척도의 하위요인이다. 의사소통유능감 1, 2, 3은 의사소통유능감척도의 6문항을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묶은 것이며, 친밀감과 연결망은 사회자본척도의 두 개의 하위요인이다.

**p<.01., ***p<.001.

www.kci.go.kr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측정 모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잠재요인이 모두 들어간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했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불안은 2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불일치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4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 '순응' 하위요인이 자기불일치 잠재변수에 묶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3요인으로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사회자본은 친밀감과 연결망 중심 사회 자본 하위요인으로 묶었다. 의사소통유능감의 경우 1개의 요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척도의 문항들을 무선적으로 묶는 문항꾸러미(item-parceling) 방식을 통해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전체변인들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χ^2 (29)=61.23, p<.001; TLI=.944, CFI=.971, RMSEA=.042. 사회불안 척도는 하위요인들이 .77~.95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는 .55~.65의 요인부하량을, 의사소통 유능감은 .71~.94, 사회자본은 .69~.73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 별 일변량정규성 검토에서, Finch와 West(1997)가 제안한 일변량 왜도 절대값 2, 일변량 첨도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각 하위 요인이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연구모형 검증

가정한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하나 이상의 모형이 경험적인 자료에 적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Breckler, 199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가장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변인들의 관계를 제안모형으로 설정하고, 대안 모형을 설정해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최종 모형을 선택하였다. 우선,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중 설명력이 더욱 우수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두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와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연구모형이 대안모형1과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보여 연구모형이 더 적합함을

표 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90% CL)
부분매개모형1 (연구모형)	61.28***	29	.944	.971	.042 (.027-.056)
부분매개모형2 (대안모형1)	72.54***	30	.929	.961	.047 (.033-.061)
완전매개모형 (대안모향2)	107.24***	32	.933	.932	.061 (.048-.073)

***p<.001.

www.kci.go.kr

확인하였다. 또한 벤틀러와 보넨(Bentler & Bonett, 1980)의 χ^2 차이검증을 통해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을 대안모형 1과 비교했을 경우,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여, $\chi^2(1)=8.02$, $p<.001$, 두 모델 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더 작은 큰 모델인 연구모형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설명한다고 간주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을 대안모형2와 비교하였을 경우 역시 두 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여, $\chi^2(3)=45.96$, $p<.001$, 두 모델 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더 작은 큰 모델인 연구모형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설명한다고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를 통해 본 각 변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4). 사회불안은 사회자본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eta=-.25$, $p<.01$. 사회불안은 의사소통유능감에 직접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beta=-.23$, $p<.01$, 매개변인인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를 통해서도 의사소통유능감에 영향을 주며, $\beta=-.25$, $p<.01$,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는 사회자본형성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beta=-.34$, $p<.01$, 의사소통유능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도 영향을 주었다, $\beta=-.31$, $p<.001$.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유능감은 사회자본형성에 영향을 정적 영향을 주었다, $\beta=.30$, $p<.001$. 한편, 사회불안과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를 매개하여 의사소통유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020$, $p<.01$, 와 온-오프라인자기불일치가 의사소통유능감을 매개하여 사회자본형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beta=-.168$, $p<.01$, 가 모두 유의하였으며(표 5), 다변량 델타방법을 이용하여 표준오차 공식을 추정한 이중매개검증공식을 적용한 결과(표 5), 사회불안이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B	ß	S.E	*t*
time 1 사회불안	→	Time 2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	.12	.25	.04	3.23**
time 1 사회불안	→	Time 2 의사소통유능감	-.05	-.23	.01	-3.59***
time 1 사회불안	→	Time 3 사회자본	-.22	-.25	.07	-3.31**
Time 2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	→	Time 2 의사소통유능감	-.14	-.31	.35	-3.41***
Time 2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	→	Time 3 사회자본	-.61	-.34	.18	-3.34***
Time 2 의사소통유능감	→	Time 3 사회자본	1.20	.30	.35	3.41***

**$p<.01$., ***$p<.001$.

www.kci.go.kr

표 5.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Sobel test(*Z*)
사회불안	→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	→	의사소통 유능감	→	사회자본	-.024	-2.01*
사회불안	→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	→	의사소통 유능감			-.020	2.60**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	→	의사소통 유능감	→	사회자본			-.168	2.64**

*p<.05., **p<.01.

사회관계 자본에 미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024, p<.05. 이에 사회불안이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사회자본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가설이 지지 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불안과 사회자본형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온-오프라인에서의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온라인에서의 이상적 자기 모습에 대한 자기제시 및 인상관리 시도가 높아지며 이것이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의 유능감 저하를 촉발시킨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들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불안이 증가할수록 온-오프라인 자기 불일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온라인에서 자신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모습, 즉 더 사교적이고, 친화적이며 주장적인 모습으로 제시하는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불안이 증가할수록 의사소통유능감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불안은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의 매개변인을 통해서도 의사소통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불안으로 인해 촉발된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는 사회자본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유능감의 저하를 통해서도 사회자본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불안은 사회자본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이중매개변인인 온-오프라인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을 통해서도 사회자본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온-오프라인에서의 자기 불일치가 증가하며, 이는 의사소통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자본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사회불안이 높은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자기 모습의 불일치가 증가하고 이는 의사소통유능감의 저하를 초래하여

www.kci.go.kr

사회자본 형성에의 어려움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면대면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대인관계의 욕구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채널 즉 의사소통의 기능적 대체물이 될 수 있다고 본 사회보상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을 주장한 연구자들과(Goby, 2006; Mckenna, Green & Gleason, 2002),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관계를 맺는데 서툴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온라인 대인관계에서도 서툴고 불안해하며 회피적인 모습을 보여 여전히 낮은 관계만족도와 웰빙을 경험한다고 주장한 부익부 빈익빈 가설(a rich-get-richer hypothesis)을 주장한 연구자(Kraut, et al., 2002; Wastlund, Norlander, & Archer, 2001; Weiser, 2001)들의 오랜 논쟁에 대하여 '부익부 빈익빈 가설'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기존의 사회보상가설이나 부익부 빈익빈 가설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실제적인 자기 제시나 사회적 행동 간의 차이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온라인 상에서의 행동과 관계만족도나 관계 질 등의 관련성만을 고려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실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맥락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맺는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양상을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High와 Caplan(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파트너는,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불안을 낮게 지각할 뿐 아니라 이들과의 대화에 대한 만족감을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의사소통유능감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자본을 형성하지 못하는 지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밝혀내었다고 여겨진다. 즉, 사회불안이 증가할수록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가 발생하고 이것이 곧 의사소통유능감을 저하시켜 사회자본형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온라인에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자기 제시를 하는 것이 타인의 자기에 대한 기대나 기준을 높이는 반면, 실제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신의 실제적인 능력에 대한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후에 그들의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실제적 자기가 드러나고 타인의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촉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의사소통을 포함한 사회적 교류에의 유능감 저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관된 자기상을 유지시키게 하는 사건이 오히려 사회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는 Wallace와 Alden (1997)의 제안 역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하이퍼퍼스널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상집단에게서 나타나는 온라인에서의 긍정적 자기제시에 따른 자존감 및 유능감 상승효과가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자본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

www.kci.go.kr

엇일까?

우선,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편향 즉, 해석편향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Heimberg와 Becker (2002)는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과 결과를 격하시키며, 그들의 사회적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의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자기 제시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거나 혹은 자기 향상(self-enhancement)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대방의 반응을 민감하게 탐지하며 온라인 상에서의 긍정적 자기제시 경험이 결국 부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해석편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귀인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불안을 경험하지 않지만,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긍정적 자기제시 경험에 대한 평가절하를 통해 더욱더 자신을 낮게 평가함으로서 자기불일치의 격차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이 유지 혹은 심화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부익부 빈익빈 가설 자체만으로는 면대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기제나 과정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자본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활용을 위한 교육 시에도 교육 및 치료적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개입하기에 앞서 우선 개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불일치 수준을 이해하고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의 오프라인에서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와 온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자기 간의 차이가 덜 나도록 온라인상에서의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를 조절하여 그들 간의 불일치를 줄임으로써 부정적 정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오프라인 상에서의 실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거나 또는 실제 자신의 모습의 변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내부에 있는 자아상의 불일치 정도를 낮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실제적 자기와 온라인에서의 이상적 자기간의 불일치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은 실제적 자기에 영향을 주는 행동 수행을 수정하거나 행동 수행에 대한 해석을 수정하는 것이다. 실제적 자기를 변화시키는 대신에 이상적 자기의 수준을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것이 자기불일치를 줄여 심리적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주관적 웰빙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Pavot, Fujita, & Diener, 1997). 셋째, 사회불안으로 인해 촉발되는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가 의사소통유능감을 매개로 하여 사회자본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대인관계상황에서 적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연습하여 의사소통에 대한 유능감을 키워나가는 것

www.kci.go.kr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가 일부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바, 전체 청소년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둘째,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온라인의 매체를 특정 매체로 제한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제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온라인 매체는 매우 다양하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 북이나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프로필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경우 지인을 중심으로 사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곳으로 특성화되고 있는 반면,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의견을 주로 드러내는 공간으로 그 매체에 따른 성격이 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대상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비교적 친밀한 대상과의 주제의 대화가 주로 오가는 반면, 네이버블로그나 다음 블로그와 같은 개방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에 따른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이나 그에 따른 자기제시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 역시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추후 연구를 통해 매체 특성에 따른 본 연구 결과의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성인들과 달리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경우 메신저나 프로필 기반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 결과를 이러한 매체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사회불안집단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보다 낯선 사람에게 자기 개방을 함으로서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주장과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 자기 개방함으로서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주장에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점(Valkenburg & Peter, 2007)이나 지각된 유능감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에 대한 친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Eisler, Hersen, Miller, & Blanchard, 1975)를 고려하면, 추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서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집단이 대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높은 탈락율(attrition rate)이 또 다른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종단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의 탈락은 불가피하기는 하나 본 연구의 경우 52%의 높은 탈락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본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중요한 제한점이라고 여겨진다. 추후 종단 연구에서는 이러한 높은 탈락율을 미리 예상하고 이러한 높은 탈락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선정하여 탈락집단과 유지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설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종단연구 방법에서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time 1에서의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이 time2에서의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에 미친 영향력을 공변인으로 설정함으로서 time1 변인인 '사회불안'에 의해 변화되었는지 혹은 time1에서의 '온오

www.kci.go.kr

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의 초기치 값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 변인을 2차 시기에만 측정하여 이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시점 모두에서 변인들을 측정하여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서 인과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자신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는 인지 편향 경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역시 의사소통 유능감이나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자기 제시와 같이 자기 보고적 검사로 측정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주관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보고된 사회자본 수준이 실제로는 높은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친밀감 및 연결망 사회자본 형성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에 미치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인지적 특성이 또 다른 조절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사회자본 지각수준에 미치는 다양한 인지적 조절변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의 경우 온라인 사회자본과 오프라인 사회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이를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자본을 각각 측정함으로서 온오프라인에서의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자본 각각에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1차 시기에 개인차 변인을 측정하고, 2차 시기를 통해 온-오프라인 자기불일치와 의사소통유능감이라는 매개변인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사회자본을 3차 시기에 측정함으로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인과관계 가설에 따라 설정한 변인들의 관계를 횡단적 자료를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는 제한점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라는 개인차 특성이 사회자본형성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심리적 기제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온라인에서의 혜택과 가능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적 지침 및 예방과 치료적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강교민 (2011). 사회불안이 신체증상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관계의 질과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제출 논문.

권정혜, 우성범, 육설아, 조 현 (2012).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가 사회자본형성과

www.kci.go.kr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2), 5-32.

김 구 (2010).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온라인 활동의 영향성 탐색: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4), 5-44.

김영수, 신희천 (2012).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4-760.

서수균 (1996). 자기 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 기질, 부모 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13-335.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S,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정남운 (2005). 대인관계 형용사척도(KIAS-40)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83-598.

한빛나, 박기환 (2013).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과 사회불안의 관계: 타인기준-자기효능감 불일치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3), 329-345.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243-264.

Anders, S. L., & Tucker, J. S. (2000). Adult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Personal Relationships, 7*(4), 379-389.

Ando, R., & Sakamoto, A. (2008). The effect of cyber-friends on loneliness and social anxiety: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self-evaluated physical attractiveness group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3), 993-1009.

Amichai-Hamburger, Y., Wainapel, G., & Fox, S. (2002). "On the Internet No One Knows I'm an Introvert": Extroversion, Neuroticism, and Internet Intera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5*(2), 125-128.

Applegate, J. L., & Leichty, G. B. (1984). Manag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ocial cognitive and strategic determinants of competence. *Competence in communicati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33-56.

Arkin, R. M., Lake, E. A., & Baumgardner, A. H. (1986). Shyness and self-presentation. In Shyness (pp. 189-203). Springer US.

Arroyo, A., & Harwood, J. (2011). Communication competence mediates the link between shyness and relational qu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64-267.

Bargh, J. A., McKenna, K. Y., & Fitzsimons, G. M. (2002). Can you see the real me? Activation and expression of the "true self" on the Internet. *Journal of Social Issues, 58*, 33-48.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www.kci.go.kr

991.

Caldwell, M. A., & Peplau, L. A. (1982). Sex differences in same-sex friendship. *Sex Roles, 8*(7), 721-732.

Caplan, S. E. (2005). A social skill account of problematic Internet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5*(4), 721-736.

Dominick, J. R., Messere, F., & Sherman, B. L. (1999). *Broadcasting, cable, the Internet and beyond: An introduction to modern electronic media*. McGraw-Hill Higher Education.

Donath, J. S., & boyd, d. (2004). Public displays of connection. *BT Technology Journal, 22*, 71.

Dunn, R. A., & Guadagno, R. E. (2012). My avatar and me-Gender and personality predictors of avatar-self discrepanc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1), 97-106.

Eisler, R. M., Hersen, M., Miller, P. M., & Blanchard, E. B. (1975). Situational determinants of assertive behavi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3), 330.

Ellison, N., Heino, R., & Gibbs, J. (2006). Managing impressions online: Self presentation processes in the online dating environment.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1*(2), 415-441.

Ellison, N.,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143-1168.

Erwin, B. A., Turk, C. L., Heimberg, R. G., Fresco, D. M., & Hantula, D. A. (2004). The Internet: home to a severe population of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5), 629-646.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4), 439-485.

Giordano, P. C. (2003).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7-281.

Goby, V. P. (2006). Personality and online/offline choices: MBTI profiles and favored communication modes in a Singapore study. *CyberPsychology & Behavior, 9*(1), 5-13.

Gonzales, A. L., & Hancock, J. T. (2011). Mirror, mirror on my Facebook wall: Effects of exposure to Facebook on self-esteem.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2), 79-83.

Goossens, L., & Marcoen, A. (1999). Adolescent Loneliness, Self-Reflection, and Identity: From Individual Differences to Developmental Processes.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225.

Gormally, J. (1982). Evaluation of assertiveness: Effects of gender, rater involvement, and level of assertiveness. *Behavior Therapy, 13*(2), 219-225.

Guerrero, L. K. (1994). "I'm so mad I could scream:" The effects of anger expression on relational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South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9*(2), 125-141.

Heimberg, R. G., & Becker, R. E. (2002).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social phobia: Basic mechanisms and clinical strategies*. Guilford Press.

Helliwell, J. F. K., & Putnam, R. D. K. (2004).

www.kci.go.kr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 1435-1446.

Hertel, G., Schroer, J., Batinic, B., & Naumann, S. (2008). Do Shy People Prefer to Send E-Mail?. *Social Psychology, 39*(4), 231-243.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1), 51-76.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5.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

High, A. C., & Caplan, S. E. (2009). Social anxiety an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during initial interactions: Implications for the hyperpersonal perspectiv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 475-482.

Jones, W. H., Rose, J., & Russell, D. (1990). Loneliness and social anxiety. In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pp. 247-266). Springer US.

Kashdan, T. B., & Herbert, J. D.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37-61.

Krämer, N. C., & Winter, S. (2008). Impression management 2.0: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extraversion, self-efficacy, and self-presentation within social networking sites. *Journal of Media Psychology: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20*(3), 106.

Kraut, R., Kiesler, S., Boneva, B., Cummings, J., Helgeson, V., & Crawford, A. (2002). Internet paradox revisited.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49-74.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4.

Leary, M. R., & Kowalski, R. M. (1995).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94-112.

Lenhart, A., Purcell, K., Smith, A., & Zickuhr, K. (2010). *Social Media & Mobile Internet Use among Teens and Young Adults.* Millennial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Maccoby, E. E. (1998). *The two sexes: Growing up apart, coming together*. Harvard University Press.

MacKinnon, D. P., Lockwood, C. M., Hoffman, J. M., West, S. G., & Sheets, V.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1), 83.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2), 63.

McCroskey, J. C., & Richmond, V. P. (1990). Willingness to communicate: Differing cultural perspectives. *Southern Journal of Communication, 56*(1), 72-77.

www.kci.go.kr

McKenna, K. Y. A., Green, A. S., & Gleason, M. E. J. (2002). Relationship formation on the Internet: What's the big attra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8*, 9-1.

Mendlowicz, M. V., & Stein, M. B. (2000). Quality of life in individuals with anxiety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5), 669-682.

Mischel, W. (1973).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re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80*(4), 252.

Montgomery, R. L., Haemmerlie, F. M., & Edwards, M. (1991). Social, personal, and interpersonal deficits in socially anxious people.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Pavot, W., Fujita, F., & Diener, E. (1997). The relation between self-aspect congruence,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2), 183-191.

Peter, J., & Valkenburg, P. M. (2006).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Internet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1*(2), 213-226.

Prisbell, M. (1991). Shyness and self reported competenc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8*(2), 141-148.

Rapee, R. M., & Melville, L. F. (1997). Recall of family factor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Comparison of mother and offspring reports. *Depression and Anxiety, 5*(1), 7-11.

Resnick, P. (2001). Beyond bowling together: Sociotechnical capital. In J. Carroll (Ed.), *HCI in the new millennium* (pp. 647-672). New York: Addison-Wesley.

Robins, G., & Boldero, J. (2003). Relational discrepancy theory: The implications of self-discrepancy theory for dyadic relationships and for the emergence of social struc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1), 56-74.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Schaffer, H. R. (1996). *Social development*. Blackwell Publishing.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3), 641.

Schlenker, B. R., & Weigold, M. F. (1992). Interpersonal processes involving impress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3*(1), 133-168.

Schouten, A. P., Valkenburg, P. M., & Peter, J. (2007). Precursors and underlying processes of adolescents' online self-disclosure: Developing and testing an "Internet-attribute-perception" model. *Media Psychology, 10*(2), 292-315.

Sheeks, M. S., & Birchmeier, Z. P. (2007). Shyness, sociability, and the use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relationship development. *CyberPsychology & Behavior, 10*(1), 64-70.

Sirgy, M. J. (1982). Self 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287-300.*

Snodgrass, S. E. (1992). Further effects of role

www.kci.go.kr

versus gender on interpersonal sensi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1), 154.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1982), 290-312.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4).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Spitzberg, B. H., & Cupach, W. R. (2002). Interpersonal skills. In M. L. Knapp & J. A.Daly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p. 564-611). Thousand Oaks, CA: Sage.

Torgrud, L. J., Walker, J. R., Murray, L., Cox, B. J., Chartier, M., & Kjernisted, K. D. (2004). Deficits in perceived social support associated with generalized social phobia. *Cognitive behaviour therapy, 33*(2), 87-96.

Valkenburg, P. M., Schouten, A. P., & Peter, J. (2005). Adolescents' identity experiments on the Internet. *New Media and Society, 7*, 383-402.

Valkenburg, P. M., & Peter, J. (2007). Onlin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Well Being: Testing the Stimulation Versus the Displacement Hypothesis.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2*(4), 1169-1182.

Valkenburg, P. M., & Peter, J. (2008). Adolescents' identity experiments on the Internet: consequences for social competence and self-concept unity. *Communication Research, 35*(2), 208-231.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1.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4*(4), 875-901.

Velting, O. N., & Albano, A. M. (2001). Current trends in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social phobia in yout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1), 127-140.

Wallace, S. T., & Alden, L. E. (1997). Social phobia and positive social events: The price of succ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416.

Walther, J. B. (1996).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mpersonal, interpersonal, and hyperperson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3*(1), 3-43.

Walther, J. B. (2007). Selective self-presentation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yperpersonal dimensions of technology, language, and cogni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5), 2538-2557.

Wang, J. L., Jackson, L. A., & Zhang, D. J. (2011). The mediator role of self-disclosure and moderator roles of gender and soci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adolescents' online communication and their real-world social relationship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6), 2161-2168.

Wästlund, E., Norlander, T., & Archer, T. (2001). Internet blues revisited: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an Internet paradox study. *CyberPsychology & Behavior, 4*(3), 385-391.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www.kci.go.kr

and Clinical Psychology, *33,* 224-257.

Weiser, E. B. (2001). The functions of Internet use and their soci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CyberPsychology & Behavior, 4*(6), 723-743.

Wellman, B., Haase, A. Q.,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436-455.

Williams, D. (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 593-628.

원 고 접 수 일 : 2014. 06. 06.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7. 19.
최종게재결정일 : 2014. 07. 22.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4, Vol. 11, No. 2, 377-402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Anxiety and Social Capital: Double-Mediating Effects of Online-Offline Self-discrepanc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Hoon Jung Koo Eun-Joo Yang JungHye Kwon

Kore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online-offline self-discrepanc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i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social capital for adolescents. A total of 316 students participated and completed the Social Anxiety and Distress Scale, Self-Discrepancy Scale modified for measuring online and offline self-presenta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and Social Capital Scale, along with a consent form three tim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as used to compare the fit of the research and alternative models, and found that the research model as the best model for the present data. Results showed that social anxiety had directly a effect on social capital and indirectly a effect on social capital via online-offline self-discrepancy, which also functions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anxiety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which also functions as a mediator between on-offline self-discrepancy and social capital. Limitations, future research and therapeutic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anxiety, Online-Offline Self-Discrepancy, Communication Competence, Social Capital

www.kci.go.kr